

AGENDA

December, 2019 | 김수진 기자

AGENDA

담당 김수진 기자

성숙한 도시의 일상

세월의 흔적이 깃든 허름한 계단, 벽 귀퉁이에 놓인 말라붙은 야자수 화분,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가 드러난 건물, 민물장어가 헤엄치는 거대한 수조... 수많은 요소가 혼재된 도시에서 우리는 매일 무엇을 보며, 혹은 놓치며 살아갈까? 사진작가 구분창의 스냅 카메라가 포착한 도시 속 일상은 때론 쓸쓸하고, 때론 모호하다. 익명으로 도시를 누비며 익숙하면 서도 생경한 풍경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교감하며 발견한 이미지 속에는 낯설과 소외, 예술가로서의 고민, 혼재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등 작가의 내밀한 자아가 숨어 있다.

'백자'와 '비누' 연작을 통해 불완전함이 가진 잔잔한 아름다움을 환기 시키는 구분창 작가의 개인전 <인코그니토.Incognito>가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정제된 시선으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소개해온 그간의 작업과 다소 결이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낯것' 그대로의 시선이 담긴 신작을 만날 수 있다. 작가가 '제3의 눈'이라 표현할 만큼 항상

돌고 다니는 스냅 카메라로 포착한 일상의 풍경이 펼쳐진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무심코 지나쳐온 일상의 요소들이 새롭게 피어난다.

“‘긴 오후의 미행’ 연작에서 보여주었던 관련 없는 듯한 이미지의 흐름 속에서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감추어진 자아를 찾는다. 이런 방식이 발견된 신작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다. (...) 은밀히 개인의 소외감을 노출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매일 신문과 뉴스에서 접하는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 국가와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환경문제 등을 인식한 나의 세계관이 은유적으로 담겨 있다.” 작가의 설명이다.

전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인코그니토' 연작을 비롯해 198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흑백사진 작업 '긴 오후의 미행' 연작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동시대 한국 사진을 대표하는 구분창을 둘러싼 세상은 어떤 모습이며, 그중 어떤 것을 택하고 표현했는지 목격할 기회다. 전시는 2020년 1월 11일까지.



Tokyo, Japan, 2019. © 구분창 KOO Bohmchang

아트와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서울옥션 강남센터 아카데미

미술품 경매장에서 요가를 하고, 아트 레이블을 감상하며 와인을 마실 수 있는 특별한 클래스가 열린다. 서울옥션이 일상 속에서 예술과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 Jean Michel Wilmotte가 설계한 강남센터를 활용해 다채로운 클래스를 선보인다. 11월 26일 서울옥션 전시장에서 작품을 보며 요가를 즐기는 '아트 요가'를 시작으로 11월 30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서상익, 김선우, 원범식 3명의 작가에게 작품



아트 요가 클래스

이야기를 듣는 아티스트 토크 '작가와 의 살롱', 12월 12일 저녁 2시간에 걸쳐 사토 무통 로칠드의 아트 레이블 와인에 대해 알아보고 시음도 해보는 '아트 레이블 와인 Art Label Wine', 12월 13일 하루 동안 미술 시장 전망과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미술 시장 리얼 스토리'까지 총 4가지 주제의 문화 프로그램을 이어 나갈 예정. 미술품이 가득한 공간의 특성에 맞춰 기획한 '화이트', '옐로', '그린', '오렌지' 컬러로 테마를 나눈 '색으로 만나는 요가' 같은 세부 프로그램이 흥미롭다. 예술 총명한 연말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2075-4425